

# 보성군, 5월 지방 축제 통합 후 첫 선

### “5월의 웰니스 관광보성” 야간 프로그램 확대

### 축제 내내 전 세대 아우르는 공연 이어질 것

보성군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의 5월을 사로잡을 통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의 웰니스 관광보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합 축제는 차(茶)·소리·철쭉·활어잡기·보성군민의 날 등 축제가 동기간에 열린다.

4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군민의 날 행사(5.1.), △보성 다향대축제(5.1.~5.5.), △보성세계차박람회(5.1.~5.5.), △서편제 보성소리축제(5.1.~5.3.), △울포해변 활어 잡기 페스티벌(5.2.~5.5.), △일립산 철쭉문화행사(5.2.~5.5)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며 보성군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차(茶)생산자 단체와 차(茶)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37명)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과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등 합찬 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축제는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축제 기간 내내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평창과 7080가수, 아이돌, 트로트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 공연이 밤의 보성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보성의 대표축제 △보성다향대 축제는 다신제, 찾있 따기, 한국 명차선정대회, 학생 차(茶)예절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전국 판



소리·고수 경연대회,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가 펼쳐진다.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은 매일 1회(오후 2시) 활어 잡기 체험이 예정돼 있으며,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 일립산에서는 붉은 꽃의 향연이 시작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5개 축제 일정을 통합하면서 축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5월 보

성에 오셔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다향대축제는 2019년 최단기 문체부 최우수축제로 승격되었으며 올해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2년간 국비지원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의 홍보지원을 받는다.

보성=김덕순 기자

## 화순군, 친환경 농업 기반 사업 공모

### 4월 20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2021년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공모 신청서를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효율화·규모화·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비는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업체류·과채류·근채류는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비의 80%(국비 30%·지방비 50%)이고, 자부담 20%다.

2021년도 공모 사업 신청서는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생산중심형(친환경 농산물 생산·저장·유통 시설 장비와 교육 컨설팅) ▲가공중심형(친환경 농산물 가공·포장·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교육·체험 시설) ▲소비자중심형(소비자협동조합의 전용 판매장)이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 생산자단체의 기반을 확충해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친환경 농업 생산 면적 확대,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의 미래 농업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까지 화순읍 1개소, 도곡면 1개소, 춘양면 2개소, 이양면 1개소를 선정해 지원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청풍면 지역 친환경 농업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신청 관련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코로나19’ 방역 계속...다중이용시설 806곳 일제 소독

### 이번 주 다중이용시설 재개관 대비...철저한 방역관리

나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 폐쇄 조치했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재개관을 대비한 일제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마을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학원, 인력대기소 등 다중이용시설 860

곳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독작업과 함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전단지도 배부했다.

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지난 달 28일부터

전체 마을 회관, 경로당, 목욕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휴관·휴원 조치해왔다.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방역대책반 운영을 통해 상황별 24시간 비상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2번째 확진자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15일자로 격리 해제되면서 빠른 시일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재개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단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관 후에도 다중이용시설 소독 작업과 예방용품 배부는 지속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2번째 확진자가 격리해제 됐지만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 영광군, ‘창직전문가 양성 사업’ 모집

영광군은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창직형 창업지원)’ 참여자 5명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은 청년이 구체화된 아이디어 또는 제품 형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창업지원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광=서희권 기자

## 여수시, 악성민원 ‘꼼짝마’...읍·면·동 비상벨 설치

### 지난해 본청 3개소 설치...올해 27개소에 확대 설치

여수시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민원 부서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27개 읍·면·동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원실 비상벨은 지난해 9월 우선적으로 본청 3개소에 설치하여 경찰서와 합동대응훈련을 마쳤고, 올해는 민원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전체 2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

다. 비상벨은 폭행·폭언 등 특이민원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경찰서와 연계된 양방향시스템이다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민원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을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위험 상황을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중심 시대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민원 공무원 친절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 순천시,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 공모

순천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5060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참여 커뮤니티’ 사업은 신중년들의 일과 학습 등 소규모 활동을 지원해 퇴직 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5060세대의 인생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순천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사업 참여는 순천시에 거주하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활동계획을 가진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신중년 팀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이모작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